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 사제, 보제,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의 성탄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들과 보제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들과 수녀들 그리고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에페소 4:3) 안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동시에 교회의 신비로운 대축일 중 하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은 지금 우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찬양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이 기쁜 사건에 대하여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천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고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위대한 기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창조주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놀라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인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화해자요(창세기
49:10), 의로우며 구원하시는 임금이자(즈카르야 9:9), 민족들이 의지할 이름을
지니신 분(이사야 42:4)을 애타게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차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이사야 9:6)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요한 3:16)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에페소 3:19) 하느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대리자나 천사가
아닌, 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아닌 하느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께서는 사람을 죄와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였고 고대의 걸출한 사상가들 역시 예감하였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이 이토록 초라하고 외견상으로는 눈에 띄지 않게
실현되었다는 것은 실로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은 잠들어 있었고,
예루살렘도 잠들어 있었으며, 온 유다 나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임금들의
임금이며 온 세상의 주님이신 만유의 주관자 주께서는 “우렁찬 나팔 소리”(시편
150:3)와 모든 이가 환호하는 소리 속이 아니라 고요한 밤 누추한 동굴 속에서
천사들의 무리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달려온 소수의 목자들의 찬송을
받으며(루카 2:15)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상생애 중 제일 첫 순간에 말 그대로 “낮아지심의 가장
밑바닥에서 덕성의 본모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묵상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1 코린토 13:4~5) 완벽한 사랑만이 이렇게
고결한 행위를 하고, 자기를 자랑 삼아 드러내지 않으며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박탈 당하고 환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교회의 스승은 계속해서 말하길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나의 몸을 받아 주시는데, 이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고, 나의 몸을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당신의 영을 주시는데, 이는 주고 받으시면서 나에게 삶의 보배를 선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 설교) 바로 여기서 삶의 진정한 보배로서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로마 11:36)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 드러났습니다.

사랑은 신성한 행위들의 진정한 원인이자 약동하는 힘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후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와의 친교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는 창조주의 예정에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요한 14:34)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악과 증오로 점철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고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지금은 약하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이 가까운 이들과 먼 이들, 은인들과 우리를 노엽게 하는 이를 포함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마태오 5:48)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모두를 품어줄 수 있게 변화시키고 넓혀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새로 탄생한 아기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온 세상의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생각합니다. 혹시 영원하신 창조주께 합당하고 알맞은 선물은 전혀 없지 않을까요? 아니오. 그런 선물은 분명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더욱 바라시는 값진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겸허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육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성가와 축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선한 행동으로써 찬양합니다. 찬란한 성탄절의 기쁨을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배려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병자들과 고생하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낙심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혼란과 슬픔에 빠진 이들 모두를 기도로써 감싸줍니다.

구원을 주는 사랑의 위대한 힘은 무관심과 악의를 치유하고 증오와 분노를 치료합니다. 엄혹한 사람들의 기질을 부드럽게 하고 사회적 관계의 많은 굴곡을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숭고한 기독교적 소명을 참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인 성 이사악이 말하였듯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수행 금언 48)

하느님 육화의 신비란 하느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임재하시는 신비를 가리킵니다. 사도이자 복음사가인 요한은 미래의 삶을 예견하면서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계실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묵시록 21:3). 그러나 신성한 임재의 이 형언할 수 없는 신비는 구세주의 탄생과 함께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는데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마르코 1:15)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 말씀을 실현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위에서 언급된 사랑의 왕국 전체의 파견자이자 대표자로서 나타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랍고 심오한 체험은 교회의 신비하고 귀중한 삶의 본질입니다.

“알파이며 오메가, 시작이며 마침, 처음이며 마지막”(묵시록 22:13)이신 만유의 주관자께서 친히 인류의 역사를 품에 안으시고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마태오 28:20)을 약속하셨다면 현재의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심지어 “세상의 먼 나라들”(이사야 8:9)에서도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구세주의 위대한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한 섭리에 희망을 두는 법을 배웁시다!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

2023/2024 년
그리스도 성탄절
모스크바